

로스쿨 · 변호사시험 수기 공모전 대상작



초졸의 우당탕탕 로스쿨 생활기

이강일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집에서 나오게 되어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은 일을 하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게 되었다. 시골에서 자랐기에 처음에는 지인을 통해 주로 농사일을 배우며 지냈으나 이후에는 점점 활동 범위가 넓어져 도축, 목공, 중장비 운전 등 정말 다양한 일을 하면서 겨우 검정고시를 통과한 후 원격대학교를 6년간 다녀 졸업했다.

이후 공군에서 군사경찰 장교로 복무하며 법에 관심이 생겼고 주변의 추천을 받아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게 되었다. 만으로는 12세부터 일을 하며 악착같이 경제활동을 했고, 원격대학교들은 대부분 본부가 서울로 등록되어 있었기에, 농촌 토박이임에도 경제적 배려나 지역 인재 등의 특별전형 지원도 불가능한 상태였다. 학업도 일 천했을 뿐 아니라 일하며 공부하느라 학점도 매우 낮았다.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불리한 입장이었으나, 불가능에 가까운 인생 국면이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것은 이제 정말로 지긋지긋하여 남들처럼 가방 메고 실물이 있는 학교에 가서 원 없이 공부만 좀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다행히 준비한 바로 이듬해에 14기로 합격하게 되어 2022년부터는 정말로 공부만 할 수 있게 되었다.

공부를 해보겠다고 했을 때 정말 많은 지원을 받았다. 함께 일해왔던 후배, 동료, 선배, 상관, 주변 어른들과 가족들까지, 나의 인생길을 아는 모든 이들이 한목소리로 너는 할 수 있다고 외쳐주었기에 이에 힘입어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을 때는 공부를 약간 우습게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다. 시중에 유명한 책 제목도 있지만, 절대 공부가 쉽지 않

은 것임을 깨닫는 데는 2개월도 채 걸리지 않았다. 처음 입학해서는 느긋하게 수강신청 하다가 선호하는 과목을 모두 놓친 것으로 1학년 1학기를 시작했다. 원격대학교는 여석이라는 개념이 따로 없어 수강신청을 전쟁하듯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믿었던만, 주변에서 비법학사라고 고민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그 외관만 존재하는 부진정 비법학도였고, 가끔가다가 진짜를 만나더라도 기본적으로 로스쿨에 입학한 동기들은 정규교육 과정을 매우 우수하게 졸업한 인원들이었기에 아무래도 기본적인 학력 면에서 동일할 수는 없었던 것 같다.

결국 정말 열심히 했음에도 여름방학에 받아 본 입학 후 첫 학기 성적은 밑에서 세는 것이 빠른 정도의 말석이었고, 그래도 그간 일을 하면서는 어느 집단에서나 우수하다는 칭찬만 받아왔던 나로서는 여간 충격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로스쿨에서 나의 위치를 정확히 인지하고 이 세계의 난이도를 깔끔하게 인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오만을 벗어나고 1학년 여름방학부터는 더 열심히 학업에 매진했다. **우리 학교는 1학년 1학기에 민사법 과목만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을 한 번에 배우는데 처음에는 정말 너무나 버거웠지만, 함께 공부해주는 좋은 동기들과 언제나 찾아가면 따뜻하게 설명해주는 교수님들 덕분에 점점 따라가기 수월해졌다.**

로스쿨의 첫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무슨 과목을 어찌 공부할지 고민 중 공부를 잘하는 법학사 친구의 권유로 방학 스터디를 구성하여 2학기 과목을 선행학습했다. 행정법과 상법, 민사소송법을 들었는데 사실 기억에 크게 남지는 않은 것 같지만 해당 과목들의 전체적 틀을 잡는 데는 큰 도움이 되었다.

1학년 2학기에는 동기들과 함께 원하는 과목을 모두 수강신청할 수 있었고 방학 때의 선행학습으로 수업도 훨씬 수월하게 따라갈 수 있었다. 학교 수업을 녹음해봐야 안 듣게 된다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들의 동의를 얻어,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되는 과목의 수업을 모두 녹음했다. 그리고 집에서 빨래, 청소 등 집안일을 하거나 운동과 산책을 할 때 그날 들은 수업을 1.5배속 내지 2배속으로 들었는데, 친구들은 그런 나의 행태를 질색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갖은 육체 노동으로 빠르게 골병이 들어 건강이 정말 좋지 못했던 나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체력적 문제로 책상 앞에 앉아있을 수 있는 시간조차 평범한 친구들에 비해 부족했기 때문이다.

수업 때는 교과서와 교수님 판서도 보면서 필기도 해야 하고 아무래도 처음 듣는 내용이다보니 순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겨도 실시간으로 내용이 계속되기 때문에 아무리 집중해서 들어도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그런데 편안한 상태에서 귀만 열고 다시 찬찬히 그날 수업을 빠르게 다시 들어보면 화자의 수업 의도 안에서 놓쳤던 부분들이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연결되면서 이해되는 부분들이 꽤 있어서 좋았다. 여전히 알 수 없는 부분이 많고 친구들에 비해 부족한 점도 많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로스쿨 생활에 적응해가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인지 1학년 2학기는 이전 학기보다 20등 이상 올라간 성적표를 받아볼 수 있었다.



방향에 답이 어디 있겠으며 있다고 한들 모두에게 다를 것이나, 결국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기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고난의 시기를 이겨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법이 굉장히 매력적인 학문이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시점이었기에 겨울방학도 굉장히 즐겁게 보냈던 기억이 난다. 1학년 겨울방학은 마찬가지로 다음 학기 선행으로 형사소송법을 강의를 들으며 공부했고, 민사소송법과 민법을 전체적으로 복습했다. 마찬가지로 공부하다가 모르는 점이 생기면 언제든지 연구실로 찾아가 교수님들께 질문했고 항상 질문 이상의 답과 깨달음을 얻어 돌아왔다.

로스쿨에서의 첫 겨울을 보내고 2학년이 되어서는 멘토 활동도 했다. 내 한 몸 건사하는 게 목표라 한사코 안 하려고 했으나 학생회 친구들의 강권으로 말았는데, 생각보다 멘티들이 내 경험을 너무 재밌고 유익하다고 해주며, 작은 조언들도 믿고 따라와 줘서 지금은 좋은 선후배이자 친구로서 함께 힘을 내고 있다.

2학년 1학기는 몸 상태가 많이 좋지 못해서 다소 힘들었던 학기이기도 한데, 하루에 수업 시간을 제외하면 1시간도 책상에 앉아있을 체력이 안 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건강이 안 좋은 친구들은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지 알 것이다. 배터리로만 하루 종일 가는 신형 노트북들 사이에서 나만 코드를 뽑으면 바로 꺼지는 구형 컴퓨터가 된 기분일까. 아무튼 나는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코드를 연결한 채 학기를 보냈다.

나는 인간이 죽기 직전까지 남는 감각이 청력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책상에 앉아 눈을 뜨고 뭔가를

볼 수 없을 때도 귀를 열어 공부할 수 있어서 그랬던 것 같다. 1학년 때 하듯 수업 녹음본을 들으며 복습을 하고, 힘이 조금이라도 남을 때는 중요 쟁점들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내 목소리로 녹음을 해서 반복적으로 들었다. 수업도 정말 좋은데, 무엇보다 직접 자신이 정리한 정보는 다시 들 때 인지 자원이 크게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힘들 때 들어도 머리에 비교적 잘 들어온다.

이렇게 동기들이 극혐하는 나의 취미가 하나 더 늘었지만, 체력이 너무나도 약한 내게는 지금까지도 가장 큰 도움이 되고 있는 학습방법이 바로 이 녹음과 반복 듣기다. 이렇게만 말하면 수업 듣고 스스로 쟁점을 정리한 걸 체계적으로 녹음해서 쉴 때도 맨날 그걸 듣는 숨막히는 공부방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실상은 힘이 닿는 대로 정리하고 녹음한 것이라서 목차로 보아도 빠진 부분이 더 많았고 정말 되는대로 우물쭈물 정리해서 한 줄이라도 배운 걸 머리에 넣어보려는 발버둥이었다고 생각된다.

2학년 1학기도 나름대로 성과가 있어서 우수한 성적은 아니지만 스스로는 한 단계 발전했다고 생각되는 학기였다. 특히 소송법을 배우면서 실제법이 훨씬 더 잘 와닿는 부분도 있다 보니 한층 법의 재미를 느끼게 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여름방학이 되었다. 우리 학교는 2학년 여름방학 때 실무실습을 나가게 된다. 학기 중에 리걸클리닉 활동도 굉장히 보람 있고 즐겁게 했었기에 실습도 기대를 많이 하면서 나갔는데, 로펌에 가서 졸업한 선배들도 만나고 법원도 다니며 실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학습 동기부여에는 더없이 큰 자극이 되었다. 아직 안 다녀온 학생이라면 방학 1~2주를 아깝게 생각 말고, 다녀오고 싶은 분야에 지원해서 후회 없는 로스쿨 생활을 보냈으면 좋겠다.

2학년 2학기는 드디어 기록형을 배우게 되는 시기라 기대를 많이 했고, 예상대로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재밌었다. 사례로만 볼 때는 느낄 수 없었던 요건사실이 정말 입체적으로 다가왔고 주장과 항변 구조가 그간 배웠던 2D 그림을 3D 그래픽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비록 시험은 대차게 망했지만 그렇게 흥미로울 수가 없었다. 민사법과 형사법이 온통 새로이 보이는 것이, 과연 법학은 회독 공부라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

거의 대부분의 동기들과 친해진 시점이라 학기 중에 이런 저런 스터디도 많이 만들어서 함께 공부했다. 특히 기록형은 도저히 혼자서 쓸 엄두가 안 났기에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같이 풀어보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렇다고 잘 썼다는 것은 아니고 처음이라 학기 내내 엉망진창이었지만, 일단 앉은 자리에서 기록을 통으로 보고 어떻게든 메모를 하고 소장이나 변론요지서를 써본 것은 아주 중요한 경험이었다. 시험을 크게 망쳤지만 그래도 이제는 학교에서 중간 정도까지 성적이 올라왔고 무엇보다 내 사정을 아는 친구들과 교수님들의 아낌없는 응원에 힘입어 좌절하지 않고 공부를 이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다시 겨울을 맞이했다. 2학년 겨울방학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3학년을 앞둔 시점이다 보니 변호사시험을 염두에 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진도 자체는 2년간 나갔던 부분이지만 워낙 양이 광범위 하다 보니 잘 기억나지 않는 부분도 많았고, 기록형을 어느 정도 맞본 지금이라면 다시 보일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시험 과목인 7법 모두 암기장을 구해서 복습했다.

그 와중에 공법은 아무래도 다른 과목에 비해 들인 시간이 적다 보니 학년이 올라가도 걱정이었고, 특히 행정법이 잘 정리가 안 되어서 고민이었다. 이런 사정을 안고 행정법 교수님께 암기장을 들고 찾아가더니 거의 방학 내내 한 장 한 장 과외를 해주다시피 하였고, 헌법은 학교에서 특강을 여러 차례 사례형과 기록형까지 열여줘서 교수님들의 큰 사랑에 힘입어 공법에도 어느 정도 자신감을 찾았다.

한편 방학은 누구에게나 항상 늘어드는 기간이다 보니 친구들과 방학 스터디를 꾸렸다. 다만 3학년을 목전에 두고 지난 2년간 나름대로 공부해온 방식이 생겼기에 각자 공부하고자 하는 바가 모두 달라서 아침 출석과 목표 인증 형식으로 스터디를 구성했다. 지각이나 목표 미달성 벌금도 엄격하게 책정했는데, 함께 하니 확실히 생활패턴도 안정되고 목표 진도도 달성할 수 있어서 효과를 많이 봤다. **우리 동기들은 학습과 친목 면에서 정말 분위기가 좋아서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이 큰 힘이 되었다.**

우리 로스쿨은 학교 자체적으로 방학 중 2월 모의고사를 보는데 3학년 올라가기 직전에 변호사시험을 풀 스케일로 맞볼 수 있어서 특히 큰 도움이 되었다. 방학 때 복습했던 7법을 모두 부딪혀볼 수 있었고, 시험 시간과 장소와 형태가 실제 변시와 동일하여 변호사시험이라는 시험 자체의 구조에도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무엇보다 학교 내신같이 적은 범위에도 허덕이는 내가 7법 선사기를 한 번에 치는 시험을 잘 볼 수 있을지 변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간 보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어 심적으로도 평안을 얻었다. 물론 다 잘 본 것은 아니고 처참한 부분도 많았는데 본격적인 수험 기간 전에 나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좋은 지표이기도 했기에 3학년 한 해를 더욱 불태워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다.

수사장교 시절, 법무관들을 보며 로스쿨이라는 곳을 처음 들었고 전역 후 세계 각지를 다니며 활동하다가 주변 어른들의 추천을 받아 리트 공부를 하게 된 것이 었그제 같은데, 어느새 16기 면접을 본다고 하더

니 입학식 안내 간판이 학교 내에서 보인다.

벌써 3학년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데, 남은 한 해도 열심히 학업에 매진해서 내년에는 변호사시험 합격 수기를 써보고 싶다. 입학 전에는 로시오패스니 그런 얘기들을 풍문으로 들곤 했는데, 우리 로스쿨이 그런지는 몰라도 나는 지금까지 한 명도 이상한 동기들을 본 적이 없다. 동기 중 몇몇은, 내가 어린 시절부터 너무 험한 곳에서 거친 동료들과 일해와서 그렇게 느끼는 거라고 하는데, 초등학교 이후 처음으로 와보는 학교가 광활한 캠퍼스에 너무 착한 친구들, 언제든지 연구실에 놀러 가면 따뜻한 차를 내주며 반겨주시는 교수님들까지, 내가 누리기에는 너무나 감사한 일들 뿐이다. 다양한 분야의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 덕분에 재밌는 법을 공부하면서 뛰어난 친구들과 함께 절차탁마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제도 자체에도 참으로 큰 감사함을 느낀다.

로스쿨 공부는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이 맞다. 트랙터, 경운기 몰아가며 밭일과 과수 농사, 닭과 오리, 호로조 등의 목축업과 도축업, 각종 목공 기계와 굴착기 등의 중장비 운전, 콘크리트 타설과 경계석 설치, 도배 및 인테리어 등 정말 할 수 있는 다양한 노동을 해 본 내가 장담한다. 해본 모든 일 중 공부가 가장 어렵다. 이런 힘겨운 길을 가는 전국의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생들과 이를 준비하는 입시생들, 정말 답답하실 텐데 꼭 참고 가르침을 주시는 교수님들 모두에게 깊은 존경을 표한다.

하다보면 정말 힘든 국면이 많이 있을텐데, 기왕 가기로 한 길이라면 즐겁게 갔으면 좋겠다. 슬럼프가 올 때는 내가 왜 이 길을 택했는지도 한번 돌아보고, 동기들과 교수님들도 찾아가서 같이 많은 대화도 나눠 보았으면 좋겠다. 방향에 답이 어디 있겠으며 있다고 한들 모두에게 다를 것이나, 결국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기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고난의 시기를 이겨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공부뿐만 아니라 살면서 닥치는 많은 역경에 ‘함께’ 견뎌왔기에 현재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음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 본다.

이상으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일과 공부를 병행해온 자타공인 대한민국 로스쿨생 중 최저학벌, 최고 위 흡수저의 법학 공부 수기를 마치려고 한다. 혹시나 주변에 비해 학력이나 가정형편이 좋지 못해 로스쿨 수학이 버겁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면, 누구보다 그 마음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이 글이 조금이나마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포기하지 말고 작은 걸음이라도 함께 법조인을 꿈꾸며 매진해보자.

37세, 파산법인대표의 로스쿨 생활기

이나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6기)



[6:00 AM, 30대 압구정 파리바게트 아르바이트생의
도전]

서울에서 법인회사를 운영하던 30대의 저는 하루아침에 수억 원의 빚을 진 빚쟁이가 되었습니다. 사무실 월세, 직원 월급, 갑자기 몰려든 은행 대출금을 갚기 위해 주 7일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회사 옆 파리바게트의 오픈조 알바를 했습니다. 행여나 직원들이 볼까 봐, 직원들 출근 시간 전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틈틈이 리트 공부를 했습니다. 천운으로 원서를 쓸 수 있는 리트 성적을 받았고, 서울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없었기에 고향인 전주에 있는 전북대 로스쿨에 입학 원서를 쓰고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한남대교에는 자살방지 펜스가 없다]

면접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회사 사정은 더 악화되었고, 새벽에 주 7일을 나가던 파리바게트 아르바이트 비용으로는 사무실 월세 비용도 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직원을 모두 정리했고, 낮 시간에는 회사 일을 하고, 오후에 2시간 정도 짬이 날 때 유치원 승하차 아르바이트, 주말에는 한의원 인포데스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승하차 알바를 하던 유치원은 압구정에 있는 영어유치원이었습니다. 한남동 빌라촌에 사는 유치원생들의 하교를 시켜주고 한남대교를 걸어오며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을 매일같이 했습니다. 면접은 봤지만 인터넷에서 찾아본 바로는 나 같은 30대 후반 여성은 합격 가능성이 매우 낮았던데... 막상 붙어도 학비는 어떻게 하고, 당장 책 한 권 사서 볼 여유가 없는데 로스쿨에 붙는다고 뭐가 달라질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집에 일하는 도우미 아줌마만 5명이라는 6살 아이를 집에 내려다 주고 걸어서 돌아오던 길, 노을이 너무 예뻐고 한강 둔치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영화에서만 나오던 그야말로 죽기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던 순간 한남대교에는 다른 다리와 달리 자살방지 펜스가 없고, 오히려 한강을 내려다볼 수 있는 발코니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길 지나는 사람은 아무도 죽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적어도 여기서는 뛰어내리지 말자’고 생각했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는지도 모르는 채 이내 로스쿨에 합격하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쫓겨나듯 강남을 떠나 고향인 전주로 내려옵니다.

[‘프로 서울 당일치기러’]

회사는 결국 파산조치를 취했습니다. 보통 법인 파산을 하게 되면 개인 파산도 함께 진행하지만, 그 경우 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기에 1억 원이 훌쩍 넘는 개인 부채를 끌어안고 전주로 내려왔습니다. 입학은 했지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까지 증빙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느라 새내기의 설렘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파산관재인 대면 진술, 재판 참여, 아직 정리되지 않은 회사 수습까지 1학년을 다니며 학기 중의 1/4은 서울 당일치기를 다녔습니다. 5시 첫차를 타고 서울을 올라가면 8시 30분이 됩니다. 오전에 일을 보고, 곧바로 내려와 오후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열람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누나, 오늘도 서울 다녀왔어?”, “언니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학교 다니면서 일까지 해요?” 어느 때와 다름없이 파산관재인에게 독촉 전화가 오던 어느 날, 동기들에게 사실을 고백합니다.

[내가 술 한 병 덜 마실게]

중간고사가 끝나고 기말고사를 앞둔 날, 비밀상자를 풀었고 독이 터진 것만양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7살의 나이에 로스쿨에 입학한 저는 우리 기수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여학생입니다. 10살 넘게 어린 나의 동기들은 한참을 그렇게 묵묵히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나 사놓고 안 보는 책 많아”, “내가 술 한 병 덜 마실게, 그걸로 맛있는 거 자주 사줄게”. 다정한 위로가 쏟아지던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서둘러 고백한 저의 고민을 보듬어주는 동기가 생겼습니다.

그날 이후 저를 보는 동기들의 시선이 달라졌나요? 아니요, 정말 아무것도 듣지 못했고 아무 일도 모르는 것처럼 걸으려는 여전히 나를 인생 선배로, 속으로는 더 깊은 마음으로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2학년에 올라가기 전, 정말로 휴학을 하고 돈을 벌어야겠다는 말에 동기들 모두가 2년만 함께 의지하고 버

터내자며 뜯어말렸습니다.

[학교에서 문제집이 가장 많은, 사랑받는 로스쿨생]

한 사이 좋은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바지 한 단을 줄여달라고 하자 어머니가 한 단을 줄이고, 딸이 한 단을 줄이고, 막내가 한 단을 줄여서 반바지가 되어버렸다는 옛이야기를 아시나요? 학교 선배에게 얻어왔다는 책, 교수님께 받아왔다는 책, 강사를 바꿔서 이제는 보지 않는다는 책, 1년 지났어도 바뀐 내용이 거의 없어서 신판과 똑같다며 주는 책. 저는 우리 기수에서 책이 가장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학원에서 듣는 인터넷 강의에서 좋은 내용을 듣고 오면 꼭 와서 알려주는 동기, 공부법을 모르고 헤매는 것 같으면 옆에 붙어서 알려주는 동기. 간식거리를 사면 꼭 대용량으로 많이 사서 내 자리에 두고 가는 동기. 동기 사이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로스쿨생인 저는,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책이 많다고 해서 당장 눈앞에 마주한 빛이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휴학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때마다 옆에서 붙들어주는 동기들 덕에 저는 오늘도 학교를 다닙니다.

[쓰리잡을 뛰는 로2 학교생활]

점심시간에는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고, 밤에는 과외 수업을 하며, 주말에는 서울에 가서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공부를 합니다. 늦게 입학한 로스쿨에서 젊은 동기들과 공부하러니 체력도,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운이 좋게도 친하게 지내는 동기들이 모두 상위권 성적의 동기들이라 공부법을 많이 배웁니다. 방학 때는 무조건 다음 학기에 들을 과목 예습을 해야 합니다. 최소 기본 인터넷 강의와 기본서 교재라도 다 보고 학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로스쿨 수업은 대부분 교수님들이 이미 선행학습이 완료됐다는 걸 전제로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수업 시간을 통해서 처음부터 지식을 습득하려고 하면 변호사시험 진도를 다 끝낼 수 없습니다. 설사 처음부터 찬찬히 알려주시더라도 학사 일정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 범위를 꼼꼼하게 보기란 사실상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방학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일회독이라도 과목 예습을 하고 오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학기 중에 교수님의 수업 내용을 들으며 한 번 더 복습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내신 성적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수업을 성실하게 들어야 하고 그 시간을 변호사시험과도 연결시켜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반드시 방학 중에 일회독을 하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식 문제는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5분 정도 시간을 내서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 않고 해당 범위의 문제는 5개 정도라도 풀어보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 금방 수업에서 들은 부분을 바로 복습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식 대

학원에서 듣는 인터넷 강의에서 좋은 내용을 듣고 오면 꼭 와서 알려주는 동기, 공부법을 모르고 헤매는 것 같으면 옆에 붙어서 알려주는 동기. 간식거리를 사면 꼭 대용량으로 많이 사서 내 자리에 두고 가는 동기. 동기 사이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로스쿨생인 저는,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비도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끝낼 수 있습니다. 사례는 반드시 교내 스터디를 통해서 시간을 확실하게 정해두고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끔 학교를 다니다 보면 일부 교수님의 수업은 변호사시험 적합성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사실 교수님들 모두 번갈아 가면서 변호사시험을 출제하시고 우리가 모르는 게 생기면 가장 빠르게 여쭙볼 수 있는 대선배님들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3년의 로스쿨 생활은 정말 매우 짧습니다. 저는 1분 1초를 쪼개어 공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글을 마치며]

부디 내후년에 변호사시험을 마치고 초시 합격 후기로 다시 한 번 공모전에 참석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공모전 수기를 쓰면서 저의 로스쿨 준비 과정부터 현재까지의 생활과 모습을 돌이켜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글을 보게 되실 여러분, 로스쿨 생활에서 교수님과 동기들은 가장 큰 자산입니다.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주위에 있는 내 동기들을 아끼고 사랑해주세요.

법률대리인의 품위와 예의: 운동 현장에서 로스쿨까지

곽진경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기)



1. 법률대리인의 품위와 예의를 생각하며

2019년, 제 나이 스물일곱의 가을이었습니다. 추석 연휴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저에게는 삶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아빠가 산업재해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500kg이 넘는 거대한 구조물에 깔려 돌아가신 아빠의 마지막 모습은 마치 뼈가 하나도 남지 않은 형겔 인형처럼 무력했습니다.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20대 중반의 장녀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었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이 사고 후처리는 비정할 만큼 차갑고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가족 중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눈물을 닦을 시간도 없이 저는 경찰서와 현장을 오가야 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 오는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사고 책임이 있는 수급업체와 하수급업체 사장들을 만나 날 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가 복잡한 산재 절차를 묻고, 회사 측 변호사를 상대하는 일도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그때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준 노무사님과 활동가분들이 없었다면 저는 금방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빠를 보낸 지 고작 열흘 만에 민형사 합의서에 도장을 찍던 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 회사 측 변호사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 잘 끝났으니, 사장님과 웃으면서 악수나 한 번 하시죠.” 그 말은 저의 심장을 찢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아빠는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차가운 영안실에 누워 계시는데, 무엇이 잘 끝났다는 것인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웃으라는 것인지 기가 찼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 무심하고 상투적인 한마디만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회사보다, 별 뜻 없이

던지던 위로보다도, 그 법률대리인의 태도가 더 깊은 흉터로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치열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법률대리인의 품위와 예의란 무엇인가.’ 법은 차가운 조문의 나열이 아니라, 분쟁으로 상처받은 사람의 삶을 어루만지는 예의여야 한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직접 찾기 위해, 저는 10대 시절부터 오랜 꿈이었던 사회운동을 그만두고 법의 세계로 뛰어들기로 결심했습니다.

2. 실패의 쓴맛과 노무사라는 새로운 시작

로스쿨 진학이라는 원대한 꿈을 품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학부 시절, 저는 사회운동에 뜻을 두었던 터라 학점 관리에 소홀했습니다. 고학년이 되어서야 성적이 조금 올랐고 장학금을 받기도 했지만, 누적된 성적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타고난 머리가 좋지 않다고 자책하며 공부했던 LEET 점수 또한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습니다. 첫 로스쿨 입시 실패는 저에게 큰 좌절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는 대신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생계가 막막한 가운데, 하루빨리 노무사가 되는 것만이 무뚝뚝했던 아빠에게 받은 사랑을 갚을 유일한 길이라 믿었습니다. 배수진을 치는 마음으로 공인노무사 시험과 LEET 공부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LEET 시험은 7월, 노무사 시험은 8월이었습니다.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계에 부딪히는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독하게 몰아붙였습니다. 그 결과, 공인노무사 시험에 운이 좋게 빨리 합격했습니다. 국가로부터 아빠의 죽음에 대한 보상을 받았으니, 이제는 제가 자격을 갖추어 저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저의 소명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 현장에서 배운 노동의 무게: 전문가의 시선과 진정성

노무사 직무개시 후, 저는 산재와 노동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에 입사했습니다. 단순히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넘어, 아빠가 겪었던 그 거칠고 위험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싶었습니다.

수많은 산재 유족 사건을 담당하며, 의뢰인들의 눈물을 마주할 때마다 제 노력이 그들의 상실감을 단 1%라도 채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밤낮없이 서면을 쓰고 증거를 모으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과로사 사건을 맡았을 때는 1,000면이 넘는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하여 만들기도 했습니다. 근로시간을 알아내기 위해 1,000개가 넘는 녹음 파일을 하나하나 듣기도 했습니다. 현장의 안전 설비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노동자의 근로 시간이 기록되지 않은 사각지대에서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 파헤치는 과정은 아빠를 잃은 제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회사의 입장에 서서 합의를 중재해야 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저는 비록 사측 입장에 서 있더라도, 과거 제 기억 속에 상처로 남아 있던 그 변호사처럼 무례한 대리인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유족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그들의 고통에 예의를 갖추는 것, 그것이 제가 노무사로서 지키고자 했던 최소한의 품위였습니다. 한 의뢰인께서 제 서면을 읽고 “위로받는 느낌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비로소 법의 온기를 전하는 법률가에 한 걸음 다가갔음을 느꼈습니다.

4. 왜 변호사여야만 하는가: 조력의 한계와 새로운 갈망

법무법인에서의 경험이 쌓일수록, 저의 가슴 속에는 해소되지 않는

갈증이 생겼습니다. 노무사로서 할 수 있는 조력의 범위는 명확한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음을 많이 쏟았던 과로사 사건을 처리할 때 그 한계는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통상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넘어야 최소한의 객관적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38시간이라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불승인 처분을 내렸을 때, 유족과 함께 준비했던 그 수많은 서면이 행정 단계에서 멈춰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당시까지는 사실관계를 가장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저였지만, 사건이 행정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면 저는 더 이상 의뢰인을 대리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노무사님과 끝까지 함께하고 싶다.”라며 새로운 대리인과 다시 처음부터 소송을 준비하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변호사였다면 직접 소송 절차를 수행하며 의뢰인의 처음과 끝을 지켜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완전한 대리인이 되고 싶다는 열망. 그것이 제가 다시 로스쿨로 향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5. 아빠가 열어주신 전북대학교 로스쿨의 문

다시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지만, 직장 생활과 병행하는 공부는 녹록지 않았습니다. 기출문제 1개년도 제대로 풀지 못한 채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낮은 학점과 LEET 점수는 저를 끊임없이 위축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입시 정보를 찾던 중, 전국 25개 로스쿨 중 전북대학교를 포함한 소수의 학교에서 ‘사회적 배려자 전형’으로 산재 유족을 선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재 유족 특별전형’이라는 이름 자체가 저에게는 국가와 사회가 건네는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학점도, LEET 점수도 낮았지만 결국은 제가 가진 ‘진정성’과 ‘실무 경험’을 믿어준 전북대학교 로스쿨에 합격하는 기적을 맞이했습니다.

법무법인 생활을 서둘러 정리하고 전주로 내려오던 날,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빠, 이번에는 아빠가 나를 도와줬네.” 이

1년 7개월 뒤, 첫 변호사시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설령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 길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법을 다루는 기술뿐만 아니라, 타인의 슬픔 앞에 겸허히 예의를 갖추는 법을 온몸으로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아빠가 저를 위해 보내주신 마지막 선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빠의 희생으로 얻게 된 이 소중한 배움의 기회를 절대 헛되이 쓰지 않겠노라,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법조인이 되겠노라 다짐하며 전주에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6. 낮은 환경에서의 적응: 낮은 자세로 배우는 친구들의 힘

사회생활을 치열하게 겪고 서른 중반의 나이에 들어온 로스쿨은 생각보다 훨씬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방대한 공부량 앞에 저는 자주 좌아졌습니다. 낮은 정량 점수로 합격했다는 사실은 때때로 저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괴롭혔습니다. 나이 차이가 꽤 나는 동기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몰라 처음에는 걸들기도 했습니다. 혹여나 제가 ‘어려운 언니’로 느껴질까 봐 먼저 다가가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때 제가 선택한 전략은 묵묵히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꾸준함은 배신하지 않았고, 1학년 때 기대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동기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밤새 정리한 학습 자료들을 동기들과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었습니다. 그것은 삭막한 수험 환경에서 저를 편견 없이 받아준 동기과 선배배들에 대한 저만의 감사 표시였습니다.

저보다 훨씬 성숙한 사고를 하는 동기들과 선배님들을 보며 과거의 제 편협함을 반성하기

도 했습니다. 어린 동기들 사이에서 만난 살아온 경로가 비슷한 친구들도 든든한 마음속 아군이었습니다. 로스쿨은 저에게 법학 지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진정으로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법을 가르쳐주었습니다. 저에게 선뜻 다가와 준 동기들이 없었다면, 저는 절대로 로스쿨에 적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7. 글을 마무리하며

로스쿨생으로 지낼 수 있는 3년은 인생 전체에서 보면 짧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간 동안 변호사시험 합격이라는 목표에만 매몰되어 인생의 소중한 가치들을 외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동기들과 같이 변론대회에 나가 치열하게 논리를 세워보고, 사회법을 공부하며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고, 노동법학회를 같이 하는 원우들을 포함한 좋은 선배배들과 밤새 철학을 나누는 이 모든 경험이 저를 더 단단한 법조인으로 만들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실 이 긴 수기를 통해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하나입니다. 그저 아빠가 너무 보고 싶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도 여전히 아빠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아빠가 계셨던 그 거친 현장을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만들고 싶어서, 아빠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에게 “나는 끝까지 당신 편입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저는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1년 7개월 뒤, 첫 변호사시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설령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 길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법을 다루는 기술뿐만 아니라, 타인의 슬픔 앞에 겸허히 예의를 갖추는 법을 온몸으로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보내주신 이 소중한 기회를 통해, 누군가의 ‘잘 끝난’ 합의 뒤에 숨겨진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의뢰인에게 “웃으며 악수하라”고 말하는 대리인이 아니라, 의뢰인이 충분히 슬퍼할 시간을 기다려주는 따뜻한 법률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빠에게 못다 한 효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 믿습니다.



강원대학교
<http://law.kangwon.ac.kr>



건국대학교
<http://lawschool.konkuk.ac.kr>



경북대학교
<http://lawschool.knu.ac.kr>



경희대학교
<http://law.khu.ac.kr>



고려대학교
<http://kulawschool.korea.ac.kr>



동아대학교
<http://law.donga.ac.kr>



부산대학교
<http://law.pusan.ac.kr>



서강대학교
<http://lawschool.sogang.ac.kr>



서울대학교
<http://law.snu.ac.kr>



서울시립대학교
<http://lawschool.uos.ac.kr>



성균관대학교
<http://sls.skku.edu>



아주대학교
<http://lawschool.ajou.ac.kr>



연세대학교
<http://lawschool.yonsei.ac.kr>



영남대학교
<https://lawschool.yu.ac.kr>



원광대학교
<https://lawschool.wku.ac.kr>



이화여자대학교
<http://lawschool.ewha.ac.kr>



인하대학교
<http://ils.inha.ac.kr>



전남대학교
<http://lawschool.jnu.ac.kr>



전북대학교
<https://lawschool.jbnu.ac.kr>



제주대학교
<https://lawschool.jejunu.ac.kr>



중앙대학교
<http://lawschool.cau.ac.kr>



충남대학교
<http://law.cnu.ac.kr>



충북대학교
<https://lawschool.chungbuk.ac.kr>



한국의국어대학교
<http://law.hufs.ac.kr>



한양대학교
<http://lawschool.hanyang.ac.kr>

법학전문대학원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시대를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합니다.